

## News

### 미국 올해 기준금리 7차례 올린다 전망에… 고민 깊어지는 한은

머니S

미국 연준의 3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하며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져… 지난 6개월간 0.75%p 올리며 미국 긴축 가능성에 대비했으나 이번에 강한 매파적 발언 했기 때문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할 것 강조… 외신들은 올해 연준이 7차례 금리결정 회의에서 모두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점 시사했다고 평가

### 금융권,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재연장 고심

굿모닝경제

금융당국, 대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재연장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져… 예정대로 3월 말 조치 종료해야 한다는 원칙이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취약계층 어려움 커졌기 때문 다만 정상적인 대출 상환과 이자 납부가 중단되며 상환 가능성 등 리스크를 파악할 수 없고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 등 부작용 우려… 3월 말 종료 원칙이나 연장 가능성도 열어놔…

### 카카오뱅크 예적금 금리 28일부터 0.3%p 오른다

파이낸셜뉴스

카카오뱅크, 예·적금 기본 금리를 최대 0.30%p 인상하기로 결정… 바뀐 금리는 오늘 신규 가입부터 적용  
정기예금은 0.20~0.30%p 인상… 만기 1년 기준 정기예금 금리는 0.20%p 오른 연 2.00%… 1년 만기 자유적금은 0.30%p 인상해 연 2.20% 금리 제공

### 4대 은행 빚보증 50조…수출 흐름에 '촉각'

데일리안

4대 은행의 확정·미확정 지급보증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총 58조 8,82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5.2% 증가… 신한은행의 지급보증 잔액이 15조 5,210억원으로 최대 기록  
확대 배경으로는 수출 호조… 작년 우리나라 수출액 3년 만에 사상 최고치 달성… 이에 관련 기업들에 대한 보증 늘어난 영향

### 손해보험사 사상 최대 수익…이유는

뉴시스

손보사들, 작년 3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 순이익 기록… 올해에도 금리상승 추세에 힘입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…  
작년 연간 합산 순이익 2조 9,678억원으로 전년대비 42.6% 증가… 현대해상은 제외한 삼성화재, DB손보는 역대 최고 순이익 기록…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영향

### KB손보·푸르덴셜생명, 국내 헬스케어 기업에 500억 투입

대한금융신문

KB손보와 푸르덴셜생명보험, KB금융지주주관 KB 솔리더스 헬스케어 투자조합에 각각 300억원, 200억원 투자 결정… 지분은 각각 29.41%, 19.61% 취득  
KB증권과 솔리더스인베스트가 공동으로 운용할 것… 투자조합의 총 규모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며 만기일은 2030년 1월 10일로 8년간 운용 예정

### '빚투'에 반대매매 늘어…미수금 대비 비중 12% 육박

헤럴드경제

최근 주가 급락으로 반대매매 급증…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289억원,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 비중은 11.7%  
1월 하루 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204억원으로 작년 12월의 148억원에 비해 37.8% 증가… 현재까지 1월 누적 금액은 3,680억원 규모

### 미래에셋증권 주당 300원 현금배당 결정

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

미래에셋증권, 보통주 기준 1주당 배당금 300원 결정… 시가배당율은 보통주 기준 3.4%… 배당금 총액은 188,136,570,600원  
당기순이익 1조 1,872억원 기록으로 실적 상승 기록… 배당금 총액과 자기주식 2,000만 주 소각금액 총액은 약 3,622억원으로 조정 당기순이익 대비 약 31.3%

#### 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시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 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 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시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